이루고 싶다면 이익 따지지 말고 혼(魂)바쳐라

정토회 법 륜 스님, '2030 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 통해 청년들에 감로법문

정토회, 3월 31일부터 총4회 걸쳐 2030청춘멘토링 실시

청춘(青春). 이십 대에 걸친 인생의 젊은 시절을 이르는 말로, 새싹이 파랗게 돋아다는 봄철을 뜻한다. 4월 7일은 오랜만에 봄비가 내린 날이었다. 그러나 '방사능 비' '황사 비' 등이란 이유로 사람들은 간만에 내리는 봄비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오히려 전국에 내린 봄비는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이 같은 아이러니 한 상황은 봄비뿐만이 아닌,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난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멋진 순간을 누려야 할 젊은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으로 학업을 중단하는가 하면,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매일 같이 삶을 허덕이며 살아간다. 현대 청년들의 청춘은 마치 달갑지 않은 봄비와 같다.

정토회는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법륜 스님을 멘토로 청춘멘토링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강연은 '2030청춘멘토링 방황해도 괜찮아'란 제목으로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 취업과 성공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강 '연애'편은 3월 31일 이화여대 ECC관에서 열렸으며, 2강 '취업'편은 4월 7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에는 300여 젊은 청년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방송인 김제동이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멘토링은 현장에서 바로 묻고 답하는 '즉문즉설' 형태로 이뤄졌다. 법륜 스님은 이날 종교를 뛰어넘어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에 대해 진솔하고 명쾌한 답을 들려줬다.



청년들이여, 세상을 군림해라

Q: 현재 7년차 직장인입니다. 갖은 고생 끝에 직장에 취업했는데, 취업을 하고 보니 회사가 너무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인간적인 문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틈만 나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는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함께 하는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집니다. 현재는 이 일이 나와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직을 해야 할지 고려중입니다.

A: 사람은 항상 일정한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과 바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뒤엔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인생은 본래 고뇌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거기에 끄달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정선에 이르면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취직을 해서 이미 직장생활을 한지도 7년이 됐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걱정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더 나은 상황이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다른 일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것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항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수행도량이라 생각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동료들이 남을 헐뜯는 다면, 가급적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내 수행도 하면서 월급까지 받는데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Q: 저는 27세 직장인이며 또한 학생입니다. 현재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대학에서 사진전공을 하다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허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도 낮고, 업무는 멀티플레이를 요구해 결국 나의 가치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 석사과정을 밟아야만 할 것 같은데 학비가 너무 부담이 돼 걱정입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면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서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 회사 있는데, 현재 스펙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에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고 항상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불안감을 떨치고 어떻게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로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바람에 떠도는 낙엽처럼 이러 저리 방황하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낙엽이 나는 건 바람 덕분 입니다.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곧 땅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법화경〉을 3000번이나 넘게 읽고, 등에 메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글도 모르고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 한 선승이 도를 깨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길로 선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선승에게 절을 하곤 "〈법화경〉의 요지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선승은 자신이 글을 모르니 어디 한번 읽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법화경〉을 듣고 난 선승은 요지를 설명해 줬고, 스님은 그 말에 크게 마음을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승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선승은 그 스님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법화경〉에 군림을 당했다면, 앞으로는 네가 〈법화경〉을 군림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태산 같이 쌓아놓고 살아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물살을 거스르는 것은 힘듭니다. 정말 공부가 하고 싶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면 좀 더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현재 20대 아닙니까. 단순히 밥벌이 때문에, 인기를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익을 따지지 말고 혼을 바쳐야 합니다. 세상을 군림할 줄 알아야 합니다.

Q: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하면 중간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갈등이나, 내가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너무 힘듭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들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보내다 보니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가끔 만나고 들어오면 외로움은 사라지지만 그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A: 이런 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공부를 하다 이런 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상이 일어났다 싶으면 운동 같은 것을 통해 재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망상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망상이 떠오르는 게 문제 아니라, 떠오르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수련이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상이 떠오르면 코끝에 집중을 하고 망념을 막아야 합니다. 어차피 떠오른 망상을 어찌할 방도는 없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도 끌려가지 않는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다급한 일이라면 아무리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옆에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외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면 그건 진정으로 그 일을 자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를 만났으면 노는 대로 놀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라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고, 여러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 1~2% 수준뿐입니다. 결국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경제의 현상유지를 위해 외국 근로자로 인력을 충당하게 됩니다. IT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거라지만, 그것도 수요를 맞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회적 악조건으로 인해 청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졸업만 시키면 된다는 시스템으로 일관하고,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등으로 서민들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 나라보다 조금은 나은 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스스로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각들이 바뀌어야 사회도 변합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은 불만족스럽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유가 되면 봉사도 하고,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발상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인이 어디 취직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본다면 좀 더 우리와 이 사회의 미래가 활기차 질 거라 봅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말로만 들었던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여 세세생생 복덕을 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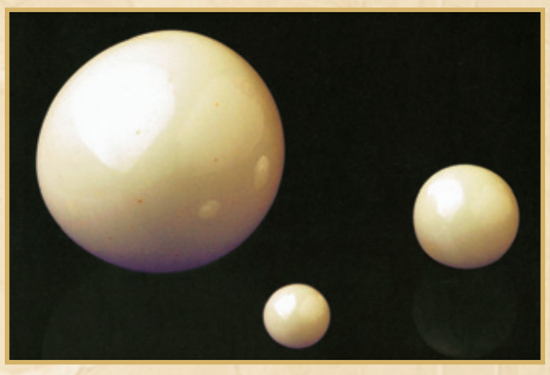
- 국내 최초 부처님 진신사리집 출간 -

若見如來舍利 卽是見佛
부처님의 사리를 보는 것은 즉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대반야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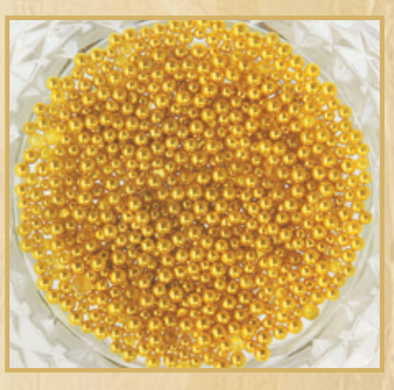
世尊眞身舍利

붓다여! 붓다여! 泥蓮河의 부활이여!





증과된 사리
원래 한 과의 큰 사리에서 작은 두 과의 사리가 증과된 신비스러운 부처님 사리



황금사리
부처님의 혈(血) 사리로써 황금색의 장엄하고 화려한 사리

부처님 사리는 수정같이 맑고 무지개빛 영롱한 빛깔과 함께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황금색 등 오색영롱한 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과 동일체로 생각하였고 가장 진지하고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불자님가정에 진신사리집을 모셔놓고 기도 하시게 되면 엄청난 환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부처님의 사리집을 소장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가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부처님의 진신사리의 진가(眞假)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찰에서 의식시 법당에 모셔놓고 불공을 드리면 무량한 가피(加被)를 보실수 있습니다.

• 크기 : 30cm X 30cm, 166면, 총천연색 칼라 사진집 • 세계적으로 공인된 부처님 사리 증명서 첨부
• 정가 : 280,000원 • 출간기념 특별할인가 : 140.000원

發行人 :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平和財團, 社團法人 韓國佛教團體總聯合會
구입 문의 : (02)761-0410, (053) 325-0400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18-21-0972-990 예금주 : 김상훈